

<http://dx.doi.org/10.17703/JCCT.2017.3.3.1>

JCCT 2017-8-1

#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과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Major Publishing and Learning Effects of College Student Authors

장영현\*

Chang Younghyun

**요약** 초중고대학생이 주체가 되는 책쓰기, 서적출판의 경우는 극소수 학생들의 범주에서 구현되어 왔다. 최소한의 경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효과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학습적 효과가 무한하며 다양성에 근거한 최대한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능력배양의 연장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습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범한 1,2학년 IT전공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기초 전공서적 과 중급 전공서적에 대한 출판을 시도하였다.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 성과는 교육과 학습의 기본적 만족도 외에도 창업기반 비즈니스의 확충, 만족도 상향에 따른 전공 정체성의 확충과 자부심, 다양한 후발효과 최대화, 지속가능한 발전성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가 탁월하였다. 추후 전공분야에서 중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학습효과와 범용적 적용을 유도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어:** 전공서적, 출판, 학습효과, 학생저자

**Abstract** In the case of book writing and publishing written by students, it has been implemented in the category of very few students. Even if it is limited to the minimum case,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effects will show that the education and learning effects are infinite, the maximum positive effect based on diversity and the effect of education and learning that can be extended to the continuation of sustainable capacity building.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publish basic and intermediate major books on two occasions for first and second grade ordinary students majoring in IT. In addition to the basic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learning, the book publishing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 authors is excellent in various fields such as expansion of business based business, enlargement of major identity due to upward satisfaction, maximization of various late effects, sec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endency. In the future, we plan to suggest ways to induce the general application of learning effect by conducting research that can achieve the same effect for middle and low level students.

**Key Words :** Major book, publication, learning effect, student author

### I. 서론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과학 논문이 세계 최고수준인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

제학술지에 게재 되었다. 광주과학기술원 서지원 교수 팀이 식물의 광합성 단백질과 유사한 인공 안테나 단백질을 합성한 연구결과가 유기화학 부문 권위지인 '오가닉 레터스(Organic Letter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정회원,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IT학과  
접수일자: 2017년 6월 30일, 수정완료일자: 2017년 7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8일

Received: 30 June, 2017 / Revised: 24 July, 2017

Accepted: 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cyh@baewha.ac.kr

Dept. of Smart IT, Baewha Women's University, Korea

밝혔다. 논문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빛을 흡수할 때 사용하는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구 결과물을 담았으며 논문 작성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4학년 강보영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SCI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3700여 종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이공계 분야 학술 논문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1]

정보기술도서 전문출판사인 영진닷컴은 대학생들이 주로 보는 IT분야 서적을 대학생이 직접 쓰면 어떻까라는 생각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T도서 대학생 저자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응모분야는 컴퓨터 운영체제, 컴퓨터게임, 인터넷·통신,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픽·CAD, 멀티미디어, 인터넷 비즈니스 등 컴퓨터 실무와 관련된 분야이다. 성과물을 기반으로 '대학생 IT 저자 시대'가 지속적으로 열려지고 있다.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 홍정기 학생의 '디지털카메라 내가 최고!'라는 IT 서적을 펴내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은 것을 시작으로 김성일(서울대 전기공학부)·이원동(서울산업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네트워크 장비 및 기술 분야 기초 입문서인 '네트워크 신입문', 윤성화(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자바분야 기초 입문서인 '자바 왕기초', 등의 연이은 IT서적이 출간되면서 대학생이 테크니컬 라이터(Technical Writer)로 본격 데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IT 서적의 주 수요층인 신세대의 감각과 눈높이에 맞는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는 신세대가 직접 저술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테크니컬 라이터 시대'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는 네티즌이 늘고 있고, 영진닷컴도 다양한 경로로 대학생 저자를 발굴할 계획이어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2] 근래의 동향으로는 한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대학생 출판 프로젝트: 한울 책 쓰기를 위한 독서/ 도서 기획/ 실질적인 글쓰기 과정의 3가지에 대하여 앞선 경험을 통한 조언을 제공하고, 대학생 저자를 발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 학생 저자 책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2015년 책 축제에 출품한 학생 저자 책 가운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총 20권의 책이 대구시교육청의 출판비 지원에 의해 올해 정식으로 출판하게 됐다. 학생 저자 출판기념회는 매년 열리는 대구 책쓰기 교육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출판된 책은 대구구암초등학교

의 '나는 시가 좋아요'를 포함한 초등학교 저자 책 6권, 화원중학교의 '반짝! 마음 속 등불이 켜지는 순간'을 포함한 중학생 저자 책 6권, 경덕여자고등학교의 '열일곱살의 우주'를 비롯한 고등학교 저자 책 8권 등 총 20권이다. 책쓰기 교육은 2009년 시작된 이래로 대구의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가 됐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책쓰기 교육으로 7만여 명의 학생 저자를 탄생시켰고, 정식 출판된 책만 162권에 이른다.[3]

교육부 학생독서 책쓰기 동아리 사업의 결실이 지역 최초로 하나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화제이다. 영광여자중학교의 책쓰기 동아리 'YG-르네상스'는 교육부 출판 도서로 선정되어 단행본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발간했다. 책쓰기 교육은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정한 주제를 정해 자신만의 책을 완성해 나가는 프로젝트 교육이며, 2014년부터 교육부가 독서 교육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의 읽기 중심 독서교육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 형태인 쓰기 교육을 강조한 독서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정제된 과정을 거쳐 표현하는 기회를 주고, 학생이 저자로 등장하면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 성장 소설, 릴레이 소설, 기존 작품을 비평하기 또는 재해석하기, 비주얼씽킹 등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4]

고려대학교 4학년 이해황 학생은 아름다운재단에 100여만 원을 쾌척했다. 출판한 대입수험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큰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10만 권 이상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으며 연속적으로 대입수험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하기 좋은 내용을 알도록 하려면 책을 쓰는 방법 밖에 없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기부라는 건 일종의 '세금'으로 국가에도 세금을 내지만, 기부는 사회에 내는 세금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5]

책쓰기의 파급효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탁월한 평가가 이어지며 교육과 학습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비견할 수 없는 효과가 측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자발적 책쓰기로 성공적 결과를 도출한 경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 내 구성원으로 그룹형 전공 출판을 시도하고 평가하였다.

## II. 관련연구

### 2.1. 전래동화를 활용한 책 만들기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 26명을 대상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한 책 만들기 활동을 4차시의 정규 수업시간과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연구수업을 하면서 쓰기능력 사전·사후 검사, 관찰일지와 학생 자기평가, 학생 포트폴리오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동화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연구 대상 학생들이 영어 쓰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정의적 영역에서 흥미도와 모험심이 향상되었다.

둘째, 영어 동화책 만들기 활동을 통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던 구두점 및 대소문자가 바로 쓰기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수정되었으며 문장의 정확성 또한 향상되었다. 특히, 상위권의 학생들은 문장수, 문법성, 유창성에게 가장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다.

결론을 토대로 한 제언은 우선 책 만들기 활동의 도입에 앞서 학습자의 영어 수준과 성향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에 알맞은 책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고 충분한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주당 2시간의 수업 시간에서 쓰기 활동에 무리가 따른다. 배당된 시간은 연간 16시간 정도로 책 만들기 활동을 수업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정규 영어 수업 시간 수의 증대 및 재량 시간의 활용 등 쓰기 활동을 위한 시수의 확충이 필요하다.[6]

### 2.2. 인생 최고의 도전, 책 쓰기

창조경영을 위한 지식경영 실천 솔루션의 하나로 구성원들의 책쓰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기업은 물론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개인에 이르기까지 직접 저자를 초청하는 워크숍과 특강이 많아지고 있으며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근육인 '위딩 파워 훈련법'등과 온라인 코칭카페 '빵 굽는 타자기'를 통해 책쓰기와 퍼스널마케팅에 관한 전천후 코칭이 깨닫는 책쓰기 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책쓰기가 1인기업의 성공비결이다』의 저자는 짜깁기 책이 아닌 깨닫는 책을 써내 작가의 인생도 변하고 독자의

인생도 변하는 책을 써내라고 조언한다. 깨닫는 책쓰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깨닫고 성공과 행복한 길을 간다는 주제를 통하여 사업가, 작가, 강연가, 자산가, 예술가의 길을 제시하면서 특히 소수의 엘리트, 기득권자의 전유물이라 인식되었던 책쓰기를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것임을 알리고 권유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책쓰기를 통하여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보증수표인 퍼스널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7]

독서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나의 변화에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책 쓰기는 자기 혁명이며, 인생 최고의 도전이다. '어떻게 쓰느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학문으로 쓰기는 개인과 나라를 모두 강하게 해 준다.[8]

### 2.3. 개인출판 플랫폼

개인출판 플랫폼의 확산으로 글로컬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보헤미안 등 디지털 신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디지털의 특성에 따라 시공간의 개념에서 자유를 확보한 신인류는 언제 어디서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자기표현에 강하다. 삶의 양식과 미학, 삶의 주제와 인생관과 가치관, 일상의 이야기 등 자기표현이 바로 '디지털 개인출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신인류들이 만나고 소통하며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가진다. 디지털 시대의 미래 인류는 글로컬 초문화를 만끽하며 평평한 대화·소통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결과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의 사회는 문화의 다양한 형식이 넘나들며, 예술과 기술, 철학의 경계가 뒤흔들리고, 주체와 객체를 뒤섞고, 개성과 다양성이 담보된 일상을 미학으로 승화하고, 로컬과 글로벌이 교차되는 진정한 '대화·소통 사회'로 판단된다.[9][10]

### 2.4. 독립 출판 시장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책을 내고 싶어 하지만 콘텐츠, 디자인, 시간,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립출판은 제한적인 모든 것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저명한 학자나 교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다. 독립 출판은 ‘자가출판’, ‘인디북’, ‘소규모 출판’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출판 범주로부터의 독립’ 또는 ‘정형화된 책 형식으로부터의 독립’ 등 ‘독립’의 뜻에 대한 해석을 소비자마다, 제작자마다 달리하는 탓이다. 그러나 스스로 집필, 편집, 인쇄, 홍보까지 일인다역을 맡는다는 의미에서는 모두 같은 것으로 통용하고 있다.[11]

### 2.5. 대학생 저자 프로젝트

출판기획사 (주)더하기북스는 ‘이번 겨울, 나도 작가가 되어봅시다’를 기치로 창조적 젊은 저자 찾기인 대학생 작가 공모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작가의 꿈을 키워왔거나 글쓰기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대학생들이 작가가 되어 자신의 책을 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역중심 책쓰기 활성화란 특별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학생 작가 공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책을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작가로 활동한 경험이 전문한 지원자로 부산지역 대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다. 방학기간 동안 아이디어 기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더하기북스 출판기획팀의 지도아래 원고를 집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펴내게 된다. 작가의 책은 경성대학교 설립하는 창업카페에서 ‘카페북’으로 전시, 판매되며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판매되며 장르, 소재, 형식, 구성방식 등에 제한이 없으며 독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콘셉트로 기획하면 된다. 지원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출판기획서로 작성해 응모하면 되며 추후 E-Book 출간도 목표로 하고 있다.

책을 출간하려면 작가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학생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펴내는 자체가 취업시장에서 돋보이는 스펙이 될 수 있으며 책을 출간하는 경험을 토대로 대학생들에게 부족한 덕목인 창의력과 창조정신도 배양할 수 있다.[12] 특정지역의 대학생 책쓰기 저자의 성공과 활성화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책쓰기 저자모델로 발전적 확대가 바람직하며 성과창출에 대한 발표회를 마련하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이타적 경험전수로 교육의 최대효과를 환류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I. 학생저자 전공서적 출판

서론과 관련연구에서 제시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에 대한 대학생 논문저자, IT베스트셀러 저자, 초중고등학교 학생저자, 책쓰기와 출판의 상호관계성, 지역기반 대학생 저자 육성프로젝트의 다양한 성과에 대한 것은 해당 책과 관련된 전문 지식 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최상의 결과에 대한 수준 높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과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는 자발적 지원형식에서 유발되는 저자의 선택형식과 상반되는 특정 대학에서 IT분야를 전공하면서 자발적 상태에서 책쓰기를 기획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적출판을 시도하였다. 이 경우의 결과를 활용하여 확장 적용하면 초중고대에서의 모든 일반적 학생들도 책쓰기의 시도를 통하여 특별한 학습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연구시도라 할 수 있다.

### 3.1. 1학년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

첫 번째로 1학년 학생 8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공서적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연구시도다. 1학년 학생들이 1학기 강의를 종료한 후 방학기간 중에 전공서적 출판에 대한 공지를 하고 지원자를 모집하여 자연스럽게 전공서적의 출판을 기획하였다. IT분야 중 1학년 학생들이 회의를 통하여 선정한 HTML5와 CSS3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1장에서 7장까지의 세분화된 주제와 26개의 소주제를 설정하고 322페이지의 전공서적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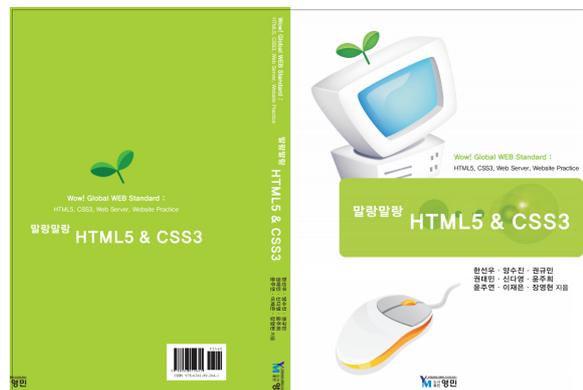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1 출판

Fig 1. Publication of Major Book1 by College Students

### 3.2. 2학년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

2학년 학생 6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공서적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연구시도다. 1학년 학생들이 2학기까지의 강의를 종료한 후 3.1의 1학년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 기획과 동일한 방향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전공서적의 출판을 기획하였다. IT분야 중 2학년 학생들이 회의를 통하여 선정한 HTML5, CSS3와 Javascript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1장에서 10장까지의 세분화된 주제를 400페이지의 전공서적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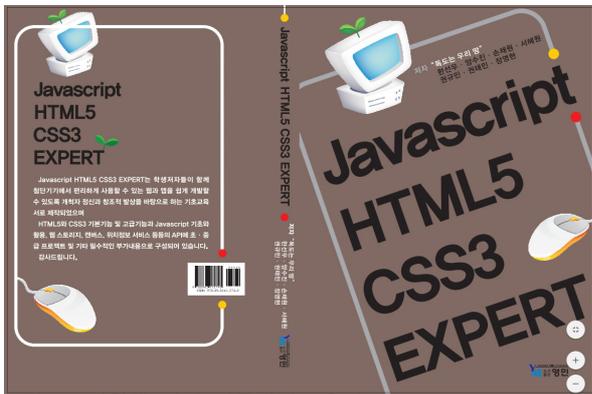


그림 2.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2 출판  
Fig 2. Publication of Major Book2 by College Students

1학년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시도는 기본적 기술위주의 저술이었으나 1학년을 마친 2학년 학생들은 중급이상의 IT분야 내용으로 웹스토리지, 지오로케이션, 캔버스와 윈도우 객체에 대한 저작이다.

### 3.3.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 성과

1학년과 2학년의 IT전공학생들에 대한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에 대한 성과측정은 세밀한 조사방식은 적용하지 못하였지만 참여 학생이 총 14명의 소규모 학생으로 개개인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첫 번째로는 저술한 전공분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습과정을 통하여 관련분야 최상위권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학습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는 14명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로 학생자신 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부가적 만족도와 호평도 무한측정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평가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는 전공서적의 출판 후 비즈니스를 출판사와의 협력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3백만원 단위의 매출성과를 자체 산출하여 청년창업에 대한 가능성까지 확장하는 기대효과를 산출하였다. 네 번째로 집필을 주도한 학생이 2학년 수석을 차지하여 전공서적 출판까지의 책쓰기에 대한 학습효과가 우수하였음에 대한 간접적 증명을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로 학생들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정신적 확증과 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하여 자부심에 기인하는 지속적 책쓰기에 대한 자신감의 환류를 내재하게 되었다.

## IV. 결론

초·중·고·대학생 자신이 주체가 되는 책쓰기, 서적출판의 경우는 특별한 프로젝트, 공모전등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구현되어 왔다. 최소한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근거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학습적 효과가 무한대와 다양성에 근거한 최대한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능력배양의 연장선을 확장할 수 있다는 교육과정의 부류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1, 2학년 IT전공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기초 전공서적과 중급 전공서적의 기획출판을 시도하였다. 대학생 저자 전공서적 출판 성과가 교육과 학습의 기본적 만족도 외에도 창업 기반 비즈니스의 확충, 만족도 상향에 따른 전공 정체성의 주관적 자부심, 학습 후발효과의 최대화, 지속가능한 발전성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창출을 발견할 수 있다. 추후 전공분야에서 중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확장할 방향을 기획하고 있다.

## References

- [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268141](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268141)
- [2] <http://www.etnews.com/200301170102>
- [3]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43305](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43305)
- [4]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821>
- [5] <http://www.newscj.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6373>
- [6] Han hey-sun, "A study on English writing instruction through the folk tale book making", Major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e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 i-ii, Nov, 2010
- [7] Song suk-hee, "Everything in writing a book", Inthebooks, May, 2016
- [8] Kim Byung-wanBook, "Writing revolution", Atempo, 2014
- [9] Gu Mo Ni Ka, "A Study on Reading & Writing Culture of Digital Era - Focusing on Digital Self Publishing Platform -", Dep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The Graduate School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pp.254-255, Jan 2014
- [10] Chang yul-jung, "Writing a book is the secrets of success in 1 person business", Hopemedia, Feb 2016
- [11] [http://magazine.hankyung.com/jobnjoy/apps/news?popup=0&nid=05&nkey=2014101400065060155&mode=sub\\_view](http://magazine.hankyung.com/jobnjoy/apps/news?popup=0&nid=05&nkey=2014101400065060155&mode=sub_view)
- [12]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